

영성은 이론과 논리 아닌 체험

인경 스님의 <수심결> 특강 ⑦

영성체험의 장애물

영성과 관련된 장애물은 아직 분명한 학문적인 체계나 공식적인 진단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영적인 장애와 일반 심리학적 장애의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이다. 이를테면 분열증의 현상에서 내담자가 어떤 환각상태에 놓여있을 때, 그것이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환각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상황에서 영성체험에 대한 냉정하고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진단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영성과 관련된 병리적인 이런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존 웰 우드는 영성에 관한 병리현상을 '영적 우회(spiritual bypassing)'라고 표현했다. 깨달음이란 이름으로 개인적인 성장에서 해

망, 굴복, 사랑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런 장애는 내담자의 내면에서 반복적으로 혼재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도하게 억압해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속적 갈망

갈망은 일상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현대 자본사회는 이점을 더욱 강화시키는 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속적 갈망은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다. 오히려 갈망은 고통을 재생산해내는 주요한 원인이고,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은 영적 성장을 장애한다. 보조국사는 세속적인 이득에 집착해, 영적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매우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 고려사회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으로 현대사회에서 세속적인 갈망은 모든 삶을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다. 재물과 욕망의 탐닉은 세속적인 마음의 정형적인 형태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궁극적인 진리를 구하는데, 영적 체험의 장애가 된다. 세속적인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곳에는 영적 관심이 약해진다. 영성에 대한 관심은 바로 궁극적인 관심이다. 궁극적이란 말은 일시적이거나 방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된 가르침[了義]이다.

영성에 기초한 상담자는 먼저 내담자에게 궁극적인 관심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아야 한다. 세속적인 열망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그 속에서, 현실적인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상과 같은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 상담에서는 단순히 현실적인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까닭에 내담자의 영적인 관심을 깊게 탐색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영성에 기초한 상담자는 이점에 마음을 예민하게 열어두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도적으로 영적인 과제로서 화두참구를 동기화할 수가 있다.

영성에 기반한 명상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심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내담자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얼마큼 중요한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 세속적 갈망과 영적인 관심은 서로 대립적인 상태에서 내담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고, 영적인 관심이 잘못하면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문제에 무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얼마의 강도로 나타나고, 이것이 내담자의 현실에

서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역시 평가할 수도 있다. 대부분 내담자는 이들의 갈등관계에서 균형을 원한다. 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욕구에서 상호 어떤 관계나 시간 배당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시도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성공했는지, 실패했다면 왜 그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굴복

영성에 기반한 명상상담에서 굴복이란 실제로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감각적인 갈망이나 아니면 높은 초월적인 힘으로 회피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간혹선 같은 명상수행은 '무엇이 나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엄청난 갈등, 긴장, 답답함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각적인 갈망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보다 쉬운 길로서 힘 있는 절대자란 존재를 상징하여 그곳에 의지

**갈망은 고통 재생산하는 원인
영적 굴복은 자기문제 회피
깨달음 크게 방해하는 장애는
화두 분별하는 사랑분별심**

하는 경향이 있다.

이점과 관련해 보조국사는 언급한 불건강한 상태에 대해 '퇴굴(退屈)'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물러나서 굴복하다는 의미이다. 굴복은 자신의 내면에 본래 존재하는 영적인 상태의 공적(空寂)과 영지(靈知)를 체험하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자기 내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자기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보다 높은 힘에 의존함으로써 자기문제로부터 회피하는 병리적인 현상의 일부라는 점이다.

보조국사가 함께 정해 닦기를 권하며, 지금 정법은 없고 말법의 시대이니 아미타불의 정토업을 닦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 보조국사의 대답은 이렇다. 첫째로 시대는 바뀌지만 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로 바뀌는 것은 궁극적인 가르침이 아닌 방편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심성이란 궁극적인 본성으로서 영성이고, 이것은 정혜의 담음을 통해서 체득할 수가 있다. 이런 본질적인 과제를 뒤로 하고, 말법이라고 하여 보다 힘 있는 존재로서 아미타불에 의지해 정토업을 닦는 것은



불성·영성은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물러나 굴복하는 퇴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굴복은 영적 본성에 대한 관심을 버려두고, 다른 힘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외적인 강한 힘으로 도망가는 일종의 회피이다. 이점은 불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보조국사가 보기에는 영불에 의한 정토업을 닦는 일은 본래의 심성을 닦는, 궁극적인 관심이 아닌 방편적인 가르침으로 본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에 대한 관심이 바로 궁극적인 붓다의 가르침이기에, 이것은 영불이 아니라 정혜로 인하여 체득된다는 입장이다. <수심결>에서의 굴복은 신통변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궁극적인 영성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신통변화는 거의 모든 종교단체에서 나타나는 신이한 기적과 같다. 마치 만화 속에서 나오는 인물처럼, 물 위를 걷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고 하는 초감각적인 현상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회피이다. 본질적인 과제 아니고 주변적인 일이고, 사된 길이다. 신통변화의 능력은 세속적인 욕망에 분명하게 이용될 것이고,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곳에는 고통·한탄이 있을 뿐이고, 궁극적인 깨달음은 없다. 신통변화에 대한 관심은 고통소멸의 길이 아니고, 깨달음의 길이 아닌 영적인 굴복이다.

사랑분별

사랑분별은 화두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을 찾는 경우로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자주 빈번하게 발견되는 장애이다. 예를 들면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 이것을 사랑으로 분별하여 이것은 절대 무라든지, 아니면 있음과 없음의 중도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분별하는 행위는 병통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점은 이미 대혜종교가 언급한 바가 있다. 보조지눌은 이것을 <간화결의론>에서 심중선병으로 명명했다.

선학자인들 어찌 심중선병(十種禪病)이 화엄의 법계연기와 같음을 모르겠는가. 그런 까닭에 경산(徑山) 대혜선사(大慧禪師)도 말하였다. "평소에 지견(知見)이 많아 증오(證悟)를 구하는 마음이 앞서 장애가 되므로, 자기의 정견(正知見)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 장애도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또한 별도의 일도 아니다" 그러나 어찌 따로 가려 구별(揀)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심중선병이란 깨달음[證悟]을 구하는 마음이 근본을 이룬다. 이미 이러한 장애가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 왔겠는가.

여기서 깨달음이란 경험적인 체득을 말한다. 영성체험은 일종의 경험적인 과정인데, 자주 논리적인 이해로서 그것을 구하려 하는 것은 바로 장애가 된다. 이런 장애가 바른 지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가장 빈번하게 자주 발견되는 장애이다. 무엇이냐 구하려는 마음이 바로 장애가 돼서 본래의 영성, 불성, 본래면목을 체험해 체득하지 못한다. 불성, 영성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는 거 추장스럽고 신성하고 거룩한 영성체험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이다. 경험은 내게서 드러남이지, 언어적인 개념으로 파악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명상상담연구원장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제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o!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